

베트남 革命의 歷史的 遺跡 Cu Chi Tunnels(구찌 땅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돈 군

캄보디아에서 돌아 오는 길에 호치민시 탄손 누트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고엽제 후유증, 꾀까이, 아오자이, 패전 후 보트 피플의 참담한 모습 등이 일종의 鄉愁(향수)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베트남인 안내자와 같이 찾아 간 곳은 호치민시(옛날 사이공시)에서 서북쪽으로 70km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구찌 땅굴이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격용 땅굴이 10여개나 굴착되

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떠들썩 하기도 하고 땅굴을 직접 답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대열에 끼이지 못한 필자로서는 이 구찌 땅굴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땅굴 근처 열대림 속에는 비디오 상영실이 여러군데 마련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안내된 곳은 한국 관광객 전용 비디오 상영실이었다. 여자 베트남 복장을 한 묘령의 아가씨가 상영하는 비디오의 제목은 '1966년 구찌사람들의 생활' 이란 것이었고 설명은 유창한 한국말로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곳에서는 제법 제고되어 있는 듯 하여 어깨가 자연히 으쓱해지는 기분이었다. 원래 구찌지역은 열대 과일이 자라는 과수원과 고무나무가 무성한 곳이라 이 지역 사람들은 평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미군의 침공으로 위협해지자 주민들은 특수한 공법을 이용하여 거미줄처럼 생긴 총연장 200km 이상의 3층으로된 지하 땅굴을 단지 손과 호미만으로 파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땅굴 속에는 사령관실, 회의실, 우물, 식당, 화장실, 수술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연기와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상에서 이 땅굴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베트남 사람



여자 베트남 유격 대원

들의 민족성을 대나무에 비유한 사람도 있지만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뛰어나며, 인내심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뛰어난 현실 적응력 등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 하였다. 12회에 걸친 미군의 폭격과 습격에도 땅굴은 무너지지 않았고 점령당하지도 않았다. 쩐티큰 여성 유격대원은 단독으로 미군을 110명이나 사상케 했고 지뢰에 능통한 반이 전사는 16명의 미군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美 第25師團(미 제25사단) 민토 중군기자는 “베트콩은 지상에 없으나 어디에나 있는데 이것은 땅굴 속에 1만 2천명 이상의 베트콩이 隱居(은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사화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비디오에서는 美軍(미군)이 越南戰(월남전)에 65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동원시켰고, 7500만 리터의 고엽제를 월남의 밀림에 投下(투하)했으며, 785 만톤의 폭탄으로 그 파편이 구찌지역 1km² 당 200개 이상이 산재해 있을 정도로 심한 폭격을 퍼 부었지만 미군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 구찌 땅굴 때문이며 이 땅굴이야말로 구찌지역 주민의 자존심이고 슬기이며 베트남 혁명 영웅의 상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비디오 상영실에서도 우리나라 말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말고도 다른 한국 관광객이 또 있었던 모양이다.

密林(밀림)으로 안내된 우리 일행에게 베트남 兵事(병사)는 땅굴의 입구를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옛날 미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영화에서 본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여기 저기 자세히 둘러보아도 땅굴의 입구인 듯한 곳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안내하던 병사가



구찌 땅굴의 지하식당

가랑잎을 헤치고 땅굴 입구를 찾아내어 덮개를 들어올리며 지하 땅굴로 안내해 주었다.

계단을 내려가 미로와 같은 땅굴의 관람은 시작되었다. 땅굴의 공간이 조금 넓은가 하면 곧 좁아져 겨우 한 사람만이 포복하여 빠져 나갈 정도인 곳도 있었다. 이렇게 공간을 일부러 좁게 만든 것은 베트남인처럼 작고 가냘프게 생긴 사람은 통과할 수 있지만 미군처럼 체구가 큰 사람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어용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사령관실, 회의실, 수술실 등을 거쳐 지상으로 올라가니, 안내자는 간이 상수도에서 손을 씻으라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면서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손을 씻은 후 안내된 곳은 지하 식당이었다. 대여섯명 정도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놓여져 있었다.

식탁 위에 놓여진 음식은 과거 베트콩들이 전투 때 먹던 음식들이라고 한다. 베트콩 유격대원인 듯한 아가씨들이 컵에 물을 부어 주면

서 그 음식을 試食(시식)하여 보라는 것이다. 지하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한 안내인의 지시가 그제서야 이해되었다. 우리나라의 마를 찌서 만든 것 같은 음식은 베트남어로 '콰이머이'라는 것이었다. 채소를 먹을 수 없는 전투시의 섬유질 식품 대용식으로는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주식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 시루떡(백설기)처럼 생긴 음식을 입에 넣어 보니 안남미로 만든 시루떡임이 틀림 없었다. 비상 식량으로서는 그저 그만일 듯 하였다. 지난 날 우리 국군들이 건빵처럼 조리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배가 고프면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식을 마치고 나가려고 출구 쪽으로 다가가니 誠金函(성금함)이 놓여 있었다. 시식한 음식값은 아마도 구찌 땅굴 觀覽料(관람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냥 지나치기가 멋적어 5\$ 짜리 지폐를 성금함에 넣고 지상으로 탈출하였다.

이 구찌 땅굴은 모든 생활과 작전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地下要塞(지하요새)임에 틀림이 없었고 미군들이 이 땅굴 때문에 월남전에서 패망하였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 구찌 땅굴을 관람하는 중에 받침대나 기둥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구찌 지역의 지하 도양이 바위

정도로 굳어 굴을 파도 무너지지 않는 토질의 특성이 있었기에 손과 호미만으로 굴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특별한 공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이러한 天然(천연)의 혜택에 의한 것이 이 구찌 땅굴인 듯 하였다.

땅굴의 관람이 끝나자 베트남들이 미군 殺傷(살상)용으로 사용하였던 끔찍한 原始的(원시적)인 무기가 진열된 곳으로 안내되어졌다. 겨울철에 적용되어 있는 필자의 체질이라 땀이 많이 흐르고 피로가 심하여 이것으로 구찌 관광을 끝내고 호치민시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돌아가는 때가 저녁에 가까운 시간인지 하얀 아오자이를 휘날리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하교길을 떼지어 달리는 모습이 異國(이국)의 정취를 흠뻑 滿喫(만끽)하게 해주었다. 아오자이는 원래 명주나 무명으로 만 들고 있었지만 요즘 여학생들은 나일론으로 된 아오자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불만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는 베트남의 현대화가 옷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 특유의 모자를 쓰지 않고 모자챙을 뒤로 하는 우리나라 신시대 여성들의 모자를 쓴 학생들이 제법 눈에 띄고 있으니 유행이란 세계 공통적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계속 호치민시를 향해 달려 갔다.

